

#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Family Support,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Behaviors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수 朴永愛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강사 黃玉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Associate prof:* Park Young Yae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Hwang Ock Kye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family support were related to their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behaviors. 580 subjects of the 5th, 6th grades filled out questionnaires concerning the three research variable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arental warmth · acceptanc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behavior and between family support and problem-solving behaviors. Problem-solving behaviors showed higher correlations

\* 이 연구는 1996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with maternal warmth · acceptance than paternal behaviors, and with opposite-sex parents behaviors than with same-sex parents behaviors. Family support predicted children's social problem-solving behaviors better than parental warmth · acceptance, especially among boy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은 적응의 중요한 요소(Spivack, Platt, & Shure, 1976; Spivack, & Shure, 1974)로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Hobb, Moguin, Tyroler, & Lahey,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행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지적과제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평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Jahoda(1953)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에도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해결 행동의 인지적 능력요소와 발달경향성(Selman, Beardslee, Schantz, Krupa, & Podorefsky, 1986; Urbain, & Kendall, 1980; 백인주, 1987)이나 문제해결책 제시의 수라든가 해결책 제시의 내용(McGillicuddy, & DeLisi, 1980; Marsh, 1982; 김은희와 이영, 1990),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아동의 평가 수준(Asarnow, & Callan, 1985; Ladd, & Oden, 1979) 등의 인지적 능력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의 대인관계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Rudolph, 1993)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문제해결 행동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양적으로 증가하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다양하고도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이 실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사회적인 문제해결 행동양상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대인간 갈등에서 다양한 해결방식을 제공하며(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Gottman, 1991; Ladd, 1991, 1992) 것은 가족이다.

특히 온정 ·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Putallaz & Heflin, 1990) 다른 양육 요인들에 비해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연구는 공격성이나 친사회적 행동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몇몇 연구들조차도 문제해결 행동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인 인지적 능력차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을 확인(Pettit, Dodge, & Brown, 1988; Pettit, Harrist, Bares, & Dodge, 1991)했을 뿐이다.

아동의 적응과 관계가 있는 가족지지(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김명숙, 1994)도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심증은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가족지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관련한 아동의 적응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지지의 효과, 그리고 아동이 보이는 문제해결행동의 관련성을 입증(Kaplan, Robbins, & Martin, 1983; Michell, Cronkite, & Moos, 1983; Dubow, & Tisak, 1989)해 왔을 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가족지지와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련성, 가족지지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그리고 양육행동과 가족지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 경험하는 양육행동의 특정 차원 및 가족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이라는 사회적인 행동양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1.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1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은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 1-2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에 따라 문제해결 행동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1 가족지지는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 2-2 가족지지에 따라 문제해결 행동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3.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적 특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역량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조차도 주로 양육행동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입증(Crick & Ladd, 1987)해 왔기 때문이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연구를 통해 확인(Hart, et als., 1990; Putallaz, 1987; Pettit, et als., 1988)되면서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는 또래와의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결부되어 있음이 밝혀 졌다(Pettit, et als., 1991).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성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상관이 있는데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적대적·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더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Putallaz, 1987; 서찬원, 1995). 이러한 양육행동과 문

제해결 능력과의 관계는 청소년 남아와 그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남아의 효과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gatch, 1989; Pettit, et als., 1988).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양육행동 차원과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제시된 문제해결책의 수와 같은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문제해결의 사회적 행동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 대한 남·여 아동의 수용성 내지는 민감성은 다른데 대체로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Richard,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고 한다. 그런데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의 관계를 본 대부분의 연구는 남·여 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차별적인 영향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특히 아동의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고(Baumrind, 1991a, 1991b), 아동의 자존감(박영애, 1995) 등 발달 영역에서 가장 밀접하고도 포괄적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온정·수용요인을 부모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가족지지와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

복잡한 가족체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정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습득과 관계가 있어(Parke et al., 1989),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Sroufe, Igeland & Kreutzer, 1990). 대인관계 역량의 근원과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초기 증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Cohn, et als., 1991; Ladd, 1992),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여러가지 가족의 특성과 형태를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가족은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관계(Buhrmester & Furman, 1987)임을 확인하고 가족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

임을 밝혔다(Felner, et als., 1982).

가족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가족지지와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보다는 주로 가족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Putallaz, 1987; MacDonald & Park, 1984)나 가족의 문제해결 행동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Rueter와 Cong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아동의 파괴적인 문제해결 행동 발달에 기여하고,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간의 상호작용은 건설적인 문제해결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 하였다. 가족의 문제해결 행동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가족이 갈등이 심하고 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도 부정적임을 밝힌 바 있고(McColloch, Gilbert & John, 1990; 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 가족의 비효과적인 문제해결 행동은 아동의 적응과 연관(MaCombs, Forehand & Smith, 1988)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가족은 아동의 긍정적 내지는 효율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사회적 역량 획득에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족지지와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약하고 구체적인 설명력이 부족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4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각각 2개 학급 아동 6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52.1%, 여아가 47.9% 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 49.7%, 6학년이 50.3% 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는 고졸 이하가 70.1%, 대졸 이상이 30.0% 였으며, 아버지는 고졸이하가 46.6%, 대졸이상이 53.4% 였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5.8%, 아버지는 일반 사무직이

45.8%, 자영·상공업이 23.7%, 기술·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9.4% 였다.

질문지들은 문항표현 및 반응 획득력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본조사는 1996년 7월2일 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응답이 부실하거나 편부모 가족의 아동을 제외한 580명의 연구대상 아동에 대해 실시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양육행동 척도

Schaefer(1965)의 차원론적 개념체계와 접근방식 및 하위척도 구성들을 척도제작 개념화 과정의 기본틀로 하여 개발한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80 문항이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여섯가지 양육행동 척도 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는 나에게'와 '아버지는 나에게' 척도의 온정·수용요인 3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 였고 세 요인들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얻어진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두 .93이었고 본조사는 .94와 .96이었다.

##### 2) 가족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Dubow 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 APP) 중에서 가족지지에 대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들이 가족과의 경험에서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인지,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지의 정도를 아동자신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5점 척도로 가족을 지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예비조사에서 내적합치도(Crobach  $\alpha$ )는 .87이었고 본조사에서는 .89이었다.

3) 대인간 문제해결행동 척도

문제해결행동 척도는 척도구성을 위한 문항선정과 제작과정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몇가지 척도들을 참고로 황옥경이 제작하였다. 특히 또래친구와의 가상적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양상을 보려는 Rudolph(1996)의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Questionnaire (IPSQ)가 척도 제작의 접근방식 및 문항 구성과정과 채점방식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본 척도의 일부 문항들은 기존 척도의 문항들을 번안·수정해서, 일부 문항들은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내용인 또래에 의해 좌절되거나, 또래에 의해 화가 나거나, 또래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등의 가상적 갈등상황(Asarnow & Collan, 1985; Lochman, Lampron & Rabiner, 1989)을 내포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응답은 사회적·주장적, 회피적·수동적, 그리고 적대적·지배적 문제해결 행동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각 선택에 대해 2, 1, 0으로 채점되었다.

27예비문항들에 대해 10명의 아동학전공자와 4명의 초, 중등교사들이 내용타당도 검토를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른 문항의 가상상황과 유사하거나, 응답내용의 변별력이 떨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한 문항양호도 분석을 거쳐 20문항의 문제해결 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계수는 예비조사는 .71, 본조사는 .74이었고, 2주후에 실시한 재검사신뢰도는 .73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4. 자료처리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 양육행동 및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지지각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용 및 가족지

지 지각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그리고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 및 가족지각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기본적인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1>을 보면 문제해결 행동은 어머니(.25)와 아버지(.21)의 온정·수용성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p<.001)을 보였다. 남,여아 모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온정·수

<표1> 온정·수용성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

	온정·수용					
	어머니			아버지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문제해결 행동	.26***	.24***	.25***	.20***	.23***	.21***

\*\*\*p<.001

용적인 양육행동과 전반적인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성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에서는 여아(.24)보다는 남아(.26)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은 남아(.20)보다는 여아(.23)가 높게 나왔다.

2.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양육행동 점수를 평균을 기준

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은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해결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2, 표3 참조).

동유형의 평균빈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행동양상은 양육행동의 상·하, 남·여, 부모에 관계없이 사회적·주장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동적·회피적, 적대적·지배적 순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수

〈표 2〉 남아의 온정·수용성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				
	상		하			상		하			상		하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문제해결 행동	1.52	.29	1.39	.29	3.80***	1.52	.29	1.37	.29	3.42***	1.51	.31	1.40	.28	2.93**

\*\*p<.01, \*\*\*p<.001

〈표 3〉 여아의 온정·수용성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				
	상		하			상		하			상		하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문제해결 행동	1.68	.20	1.60	.26	2.86**	1.69	.20	1.58	.25	3.05**	1.67	.21	1.60	.26	2.51*

\*p<.05, \*\*p<.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아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에 대한 지각의 상, 하집단의 차이가 p<.001에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상하집단 각각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 여아 모두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문제해결 행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의 차이가 더 컸으며 특히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에 대한 지각 수준과 문제해결 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의 구체적인 유형은 어떠한가? 아동이 보이는 구체적인 문제해결 행동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정·수용성 상, 하 집단 아동이 각 문제해결 행동유형에 반응한 평균빈도를 구하고 이의 차이를 검증하였다(표4 참조). 먼저 행

용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온정·수용성 지각이 높은 상위집단은 또래간 문제해결 상황에서 사회적·주장적 문제해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하위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1), 온정·수용성 지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집단은 수동적·회피적 행동(p<.001)과 적대적·지배적 행동(p<.05)을 보이는 경향이 상위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아의 경우는 적대적·지배적 문제해결 행동영역에서, 여아의 경우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영역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지각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3. 가족지지와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가족지지와 문제해결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본적인 관계 양상을 분석한 〈표 5〉를 보면 가족지지

〈표 4〉 온정·수용성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 유형

문제해결행동	온정·수용								
	전 체			남 아			여 아		
	상	하	t	상	하	t	상	하	t
사회적·주장적	14.5 <sup>1)</sup> (3.12) <sup>2)</sup>	12.1 (3.68)	5.98***	13.3 (3.40)	11.4 (3.54)	4.59***	15.3 (2.58)	14.0 (3.23)	3.39***
수동적·회피적	3.2 (1.97)	4.6 (2.46)	4.13***	3.5 (1.89)	4.8 (2.53)	4.26***	3.0 (1.99)	3.5 (2.18)	1.76
적대적·지배적	2.4 (2.49)	3.1 (2.67)	2.52*	3.1 (2.85)	3.7 (2.72)	1.77	1.7 (1.97)	2.3 (2.25)	2.42*

1) 은 평균빈도, 2)는 표준편차 임.

\*p<.05, \*\*p<.01, \*\*\*p<.001

는 문제해결 행동과 유의한(p<.001) 정적상관(.3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아동을 보면 아동의 가족

〈표 5〉 가족지지와 문제해결 행동 상관분석

문제해결 행동	가족지지		
	전 체	남 아	여 아
문제해결 행동	.34***	4.37***	.27***

\*\*\*p<.001

지지 지각은 여아(.27)보다는 남아(.37)의 문제해결 행동과 상관이 더 높았다.

4. 가족지지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가족지지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족지지 점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가족지지 지각에 따라 두 집단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아가 가족지지에 대한 문제해결 행동의 상, 하집단의 차이(P<.001)가 여아(P<.01)보다 더 높았다. 남, 여아 모두 가족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차이

가 있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가족지지 지각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 하집단 아동이 세가지 문제해결 행동유형에 반응한 평균빈도를 구하여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유형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표7참조). 평균빈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지지 지각의 상·하, 남·여아동에 관계없이 아동은 사회적·주장적, 수동적·회피적, 적대적·지배적 순으로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가족을 보다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상위집단 아동들은 하위집단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주장적인 또래간 문제해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고, 가족지지 지각 수준이 낮은 하위 집단 아동은 적대적·지배적, 수동적·회피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상위집단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아는 세가지 문제해결행동 유형 모두에 대해서 가족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는 사회적·주장적(p<.001), 적대적·지배적(p<.01) 문제해결 행동이 가족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적·회피적인 문제해결 행동은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마찬가지로 가

〈표 6〉 가족지지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차이

	전 체					남 아					여 아				
	상		하			상		하			상		하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문제해결 행동	1.63	.23	1.44	.30	8.16***	1.56	.26	1.35	.30	6.58***	1.68	.20	1.57	.27	3.33**

\*\*P<.01, \*\*\*p<.001

〈표 7〉 가족지지에 따른 문제해결 행동의 유형

문제해결 행동	가족지지 지각								
	전 체			남 아			여 아		
	상	하	t	상	하	t	상	하	t
사회적·주장적	14.6 <sup>1)</sup> (2.97) <sup>2)</sup>	12.1 (3.64)	8.81***	13.8 (3.19)	11.1 (3.47)	6.87***	15.3 (2.60)	13.8 (3.29)	3.59***
수동적·회피적	3.3 (2.10)	4.3 (2.27)	4.81***	3.5 (2.07)	4.6 (2.34)	4.26***	3.1 (2.12)	3.5 (1.97)	1.51
적대적·지배적	2.1 (2.22)	3.5 (2.84)	6.63***	2.5 (2.46)	4.2 (2.90)	5.06***	1.6 (1.89)	2.5 (2.40)	2.91**

1) 은 평균빈도, 2)는 표준편차 임.

\*p<.05, \*\*p<.01, \*\*\*p<.001

족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의 설명력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는 상호상관이 .59로 다중공선성을 지닌 변수들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그 두 변인을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대적 기여도나 설명력을 분석하기가 어려워 단순회귀 분석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았다. 아동전체, 남아, 그리고 여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각 예측변수의 설명력은 〈표 8〉과 같이 나왔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전체와 남, 여아 모든 집단에 있어서 부모의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모두 또래간 문제해결 행

동을 예언해 주는 유의한(p<.001) 변인들 임이 밝혀졌다. 아동전체를 볼때,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은 6%의 예측력을, 가족지지는 12%의 설명력을 보여 온정·수용성보다는 가족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더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간 설명력의 이같은 차이는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가 훨씬 두드러져 여아의 경우는 가족지지(5%)와 온정·수용성(6%)의 설명력이 비슷하였으나 남아의 경우는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6%)보다도 가족지지(12%)가 문제해결 행동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가족지지의 설명력

	전 체				남 아				여 아			
	B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B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B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부모의 온정·수용	1.06	.08***	.06	.06	.93	.12***	.06	.06	1.26	.09***	.06	.05
가족지지	.99	.06***	.12	.12	.87	.09***	.12	.12	1.30	.08***	.06	.06

\*\*\*p<.001

### V. 논의 및 결론

#### 1) 온정·수용성과 문제해결 행동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기여는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으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이처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부모와 아동의 성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남, 여아 모두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양육과 전반적인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이 발견되었으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의 상관이 더 높았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에 대해서는 남아가, 아버지의 온정·수용성에 대해서는 여아의 상관이 더 높았다. 이는 Putallaz(1987)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특히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은 문제해결 행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강조한 발견과 잘 부합된다. 특히 남아는 여아보다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상관이 더 높았고 온정·수용적 양육의 영향도 더 컸는데, 이러한 발견은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양육이 남아의 자존감 중 사회적 수용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박영애(199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육의 온정·수용성 수준에 따른 세가지 문제해결 유형의 평균 발생빈도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는 온정·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동전체

로 볼 때 온정·수용성 상하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주장적 행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수동적·회피적 행동이었으며 적대적·지배적 행동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온정·수용성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주장적 문제해결 행동은 유의하게 높았고 수동적·회피적 행동과 적대적·지배적 행동은 유의하게 낮았다.

남, 여아를 따로 볼 때도 온정·수용성은 사회적·주장적인 문제해결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온정·수용성이 보다 긍정적인 문제해결 행동유형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온정·수용성 상, 하에 따라 남아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에서, 여아는 적대적·지배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온정·수용성이 낮아지면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남아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이, 여아는 적대적·지배적 행동이 증가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있는 발견으로써,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남아가 더 쉽게 적대적·지배적 행동을 보이게 되고 여아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을 더 많이 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즉 부모의 온정·수용성과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온정·수용성이 부족하면 남아가 오히려 수동적·회피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여아는 적대적·지배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양육의 두번째 주요요인인(박영애, 1995참조) 거부·제재의 효과에서 나타날 아동의 성차이에 호기심을 갖게 한다. 현재로서는 부모의 거부·제재의 증가는 아마도 남아에게는 적대적·지배적 문제해결의 증가를, 그리고 여아에게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수 있을 뿐이며, 이는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남, 여 아동의 상이한 반응양상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지지와 문제해결 행동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가족지지의 긍정적인 기여가 발견되므로써 일단 가족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그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었다.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보다 가족지지가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여아보다는 남아의 문제해결 행동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나(Richard,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남아가 여아보다 가족관계의 정적 측면, 즉 가족의 격려, 도움, 관심, 사랑,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등의 가족지지에 더 민감함을 말해준다.

가족지지 지각수준에 따라서도 문제해결 행동의 선택양상은 상, 하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족을 보다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집단은 지지지각 정도가 낮은 하위집단에 비해 사회적·주장적인 행동유형을 더 많이 보인 반면에, 수동적·회피적 및 적대적·지배적인 행동유형을 더 적게 보였다. 남아는 세 가지 행동유형 모두에서 가족지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아는 온정·수용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동적·회피적 행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 여아 모두 사회적·주장적인 문제해결 행동이 가족지지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을 보다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이 문제행동이 적고 보다 적응적이라는 보고(김명숙, 1994)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지지와 문제해결 행동과의 전반적인 관계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Forgatch, 1989; MacDonal et als., 1984)과도 일치한다.

## 3)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의 설명력

온정·수용성 및 가족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또래간 갈등상황에서의 특징적인 문제해결 방식 및 문제해결 행동의 양상을 예측해 주었다. 양육의 온정·수용성이라는 단일차원적 요인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을 더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남아의 경우는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가족지지의 설명력이 온정·수용성의 설명력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비해 여아의 경우는 두 예측변인의 설명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는 여아에게는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가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지는데 반해 남아에게는 두 변인이 다르게 지각되며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달리 가족지지의 부가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어떠한 특성내지는 조건에 남아가 특별히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들과 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은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 문제해결 행동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과의 상관이 더 높았고, 이성부모와의 상관이 더 높았다.

2. 양육의 온정·수용성은 남, 여아동의 사회적·주장적인 문제해결 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가장 컸으며, 남아의 경우는 수동적·회피적 행동이, 여아는 적대적·지배적 행동이 온정·수용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3.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온정·수용성과 가족지지의 설명력은 가족지지가 더 높았고, 여아보다는 남아의 경우가 더 컸다. 가족지지는 남, 여아동의 사회적·주장적인 문제해결 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가장 컸으며 여아는 수동적·회피적인 문제해결 행동유형에서는 가족지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여러 차원들 중 아동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정·수용성을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양육행동의 대표적인 변수로 보고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온정·수용성의 양육행동의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의 다른 여러 차원들에 대한 남, 여 아동의 상이한 반응양상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 남아의 문제해결 행동에 가족지지의 어떤 측면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아동자신과 또래 등이 포함된 보다 다양한 아동의 대인지각과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 시킬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 김은희, 이영(1990).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 1, 52-67.  
 3)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4) 백인주(1987).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 및 목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5) 서찬원(1995). 부모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대인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6) Asarnow, J. R., & Callan, J.W. (1985). Boys with peer adjustment problem : Social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0-87.

7) Baumrind, D. (1991a).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ce transition. In P. A. Cowan & M. Her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 (pp. 111-163). Hillsdale, NJ: Erlbaum.  
 8) Baumrind, D.(1991b).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9)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10)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11) Cric, N. R., & Ladd, G. W.(1987). Nominator attribution: Does it affect the accuracy of children's sociometric classific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35, 197-207.  
 12)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13)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14)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15) Forgatch, M. S.(1989). Patterns and outcome in family problem solving : The disrup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15-124.  
 16) Gottman, J. M.(1991). Finding the roots of children's problems with other childr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41-448.

- 17) Hart, C. H., Ladd, G. W., & Burler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 137.
- 18) Hobbs, S. A., Moguin, L.E., Tyroler, M., & Lahey, B.B (1980). Cognitive behaviour therapy with Children : Has clinical utility been demonstrated?, *Psychological bulletin*, 87, 147-165.
- 19) Kaplan, H. B. Robins, C., & Martin, S.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20) Jahoda, M.(1958). *The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 Basic Books.
- 21) Ladd, G. W.(1991). Family- peer relations during childhood : Pathway to competence and 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07-314.
- 22) Ladd, G. W.(1992). Themes and theories :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r relationships. In R. Parke & G. W. 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 Erlbaum.
- 23) Ladd, G. W., & Oden, S. (1979).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cceptance and children's ideas about helpfulness. *Child Development*, 50, 402-408.
- 24)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25) MaCombs, A., Forehand, R., & Smith, K.(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roblem-solv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57-66.
- 26) Marsh, D.T.(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118.
- 27) McColloch, M. A., Gilbert, D. G., & Johnson, S. (1990). Effects of situational variables on the interpersonal behavior of families with an aggressive adolescent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57-66.
- 28) McGillicuddy- Delisi, A. V.(1980). Predicted strategies and success in children's resolution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175-187.
- 29)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C., Ware, E. E., & Saleh, W. E.(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611-1619.
- 30) Mitchell, R. E., Cronkite, R. C., & Moos, R. H. (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Abnormal Psychology*, 92, 433-448.
- 31)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1991). Family interaction ,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83-402.
- 32)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33) Platt, J.J., & Spivack, G. (1977). Problem-solving thinking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148-151.
- 34)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35)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6) Rudolph, K. D.(1993).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self, family, and peers, social competence, and

- sociometric statu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37) Rueter, M. A., & Conger, R. D.(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 98-115.
- 38) Selman, R. L., Beardslee, W., Schultz, L. H., Krupa, M., & Donna Podorefsky(1986). Assessing adolescent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inter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4, 450-459.
- 39) Schaefer, E.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40) Spivack, G., & Shure, M. B.(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 life problems*. Washington : Jossey-Bass,
- 41)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B. (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Washington, DC : Jossey-Bass.
- 42) Sroufe, L. A., & Egeland, B., & Kreutzer, T. (1990). The fate of early experience following developmental change : Longitudinal approaches to individual adaptation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63-1373.
- 43) Urbain, E. S., & Kendall, P. C.(1980). Review of social-cognitive problem-solving interventions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8, 1, 109-143.